

When Is the Endpoint of the Adolescence?

Geon Ho Bahn¹, Ji Eun Ryu², Yeon Jung Lee³, Juhee Han⁴, Aram Lee⁴, and Minha Hong⁵

¹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²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sychiatry, Myongji Hospital, Goyang, Korea

청소년기의 끝은 언제인가?

반건호¹ · 유지은² · 이연정³ · 한주희⁴ · 이아람⁴ · 홍민하⁵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¹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²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⁴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⁵

In the past, the human life span has been divided into childhood and adulthoo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has been evide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us, a transitional stage called “adolescence” has emerged. Although adolescence was once consistent with puberty, when the release of hormones increases sharply, the definition of adolescence has been changing with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 social problems related to adolescence, such as suicide, internet gaming, juvenile delinquency, violence, and dropping out of school, are increasing. Apart from external problems, internal problems such as Japanese Hikikomori are also increasing. With these changes, there is an important need to discuss the nature of adolescence. Whereas childhood is the stage that requires care-giving, adolescence is the stage when duty and responsibility emerge. In late adolescence, there is a transition period into adulthood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Currently, as the importance of adolescence has been highlighted from various sectors, “the endpoint of the adolescence” is a stimulating theme in the psychiatric field. From a neuro-biological perspective, a greater understanding of adolescence becomes more important to solve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and for the legal demarcation of adolescence related to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delinquency. If adolescence is not just the transition stage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the exact endpoint for adolescence should be determined.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try to define the stage of adolescence in modern society from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definition, and psycho-socio-bio-cultural aspects. **Psychoanalysis 2015;26(1):3-17**

KEY WORDS: Adolescence · Endpoint · Cultural · Spiritual · Biological · Puberty ·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Received: March 27, 2015 Revised: April 8, 2015 Accepted: April 10, 2015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82-2-958-8556, Fax: +82-2-957-1997, E-mail: mompeian@khu.ac.kr

서 론

청소년기 개념의 탄생과 변천

해리포터 시리즈(Rowling 2007)는 주인공인 해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분리-개별화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아동문학에서 청소년 문학의 영역으로 이어진다(Trites 2001). 해리는 선택된 자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부모는 물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장하며, 해리와 그의 부모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이모네 가족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란다. 11살이 되던 해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여 자기 부모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며, 해리의 어머니는 그를 악으로부터 영원히 구해줄 사랑을 준 후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해리마저 죽이려다 영혼이 조각난 볼드모트의 존재도 알게 된다. 이후 해리는 일 년 단위로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볼드모트를 제압하고, 자기 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확인하고 성장한다(Lee 등 2013). 친구인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성장하면서 마법세계에서 배워가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는 것들과 인간적 성숙, 부모님의 친구들을 통해 자기 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 론의 여동생인 지니와의 사랑, 볼드모트의 공포를 극복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성인 남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의 7학년 동안 다양한 발달과제를 성취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의 삶에서 이처럼 분명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 생활에서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를 구분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란 단어의 유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래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20세기 초 Sigmund Freud를 미국에 초청했던 Clark 대학의 총장이었던 George Stanley Hall이 1904년 자신의 저서인 'Adolescence'(Hall 1904)에서 처음 정의한 이래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로 일컬어져 왔다. 영어에서 adolescence가 처음 등장한 것은 1430년 영국 시인 John Lydgate의 시이다(Steffoff 1990). Adolescence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말로 '성장하다(to grow up)' 혹은 '성숙하다(to grow to maturity)'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성숙기라는 뜻이다(Jagenow 등 2015).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 학자와 관점에 따라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청소년기라는 개념은 산업화의 진행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의 특정 결과물로 형성된 것이다. 청소년기의 길이와 시기, 그 특성을 기술할 때 발생하는 불분명함은 산업사회 제도에서 기인한다. 산업 혁명 이후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가 생겨나면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Rakoff 2003).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다. 상대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16~17세기 농업 경제에서는 아동의 노동이 가족의 경제적 운영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아동은 이른 나이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때로는 어른과 함께 일하는 경제적 자본으로 인식되었다(Modell과 Goodman 1990).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능력과 관련되었다. 일례로 미국 식민지 시대의 발달 상태는 경제적 지위와 연관있고, 젊은이(youth)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여건은 부족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Kett 1977). 19세기 초에는 원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족과 생활하며 가내수공업 등을 담당하는 시기로 일컬어

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젊은이는 '준독립(semi-independence)' 상태로 설명되었다.

19세기 이후 젊은이(youth)와 성인 사회의 관계는 세 가지 큰 변화를 맞이한다(Fasick 1994). 먼저, 19세기의 빠른 산업화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기술의 발달은 결국 아동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둘째, 농업이 감소하고 학교 교육이 성공적인 직업으로 가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많은 부모들은 새로운 직업을 대비하기 위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는 노동 현장보다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셋째, 1870년과 1930년 사이에 경제적 자산으로 여겨지던 아이들이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아동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청소년이 경제적 노동 창출의 주체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변화하면서, 청소년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윤리적,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아동의 활동이 학교와 가정에 국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Zelizer 1985).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그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동 노동의 가치 하락과 정규 교육의 시작은 청소년기 활동의 중심을 노동 현장에서 초등학교로,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바꾸었다. 성인 노동에서 아동의 분리는 성인과 젊은이를 구분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은 1940년에 발간된 『조선어사전』이며, 이미 1930년대에 이 용어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Lee 2006a).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아동이나 성인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소인 혹은 미성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용어나 범주 및 개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 후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이 인력을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에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청년문화운동과 학생운동이 왕성하던 시기에는 대학생이 청소년 범주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Lee 2006a). 또한 대중소비사회의 도래로 1990년대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 규정되었고, 마침내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이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청소년 지도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1년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기준, 국내 43곳의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의 청소년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의미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Freud(1904)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성적 본능의 에너지인 libido는 일생을 통하여 상이한 신체부위에 집중되며, 이 libido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부위를 성감대라 칭하였다. 이러한 성감대의 연령적 변화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는 구순기(생후 첫 1년), 항문기(1~3년), 남근기(3~6년), 잠복기(6년~사춘기), 생식기(사춘기 이후)로 나뉜다. 생식기 단계는 오늘날의 사춘기 내지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Anna Freud는 청소년기를 격동기로 설명했고, 이 격변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성숙과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격동 시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언급했다(Freud 1958). 그녀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기에 흥미를 갖고 청소년기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정신분석적 발달이론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특히 정신 역동에서 자아(ego)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이것은 자아 심리학(ego Psychology)이라는 분야로 알려지게 되었다(Simanowitz와 Pearce 2003). Winnicott(1971)은 Anna Freud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lein은 유지와 파괴, 사랑과 증오라는 대립되는 두 가지 내부의 힘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imanowitz와 Pearce 2003). 이렇듯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는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서 혹은 구분되는 특징적인 한 시기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첫째,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성숙도에 따라 이 시기의 경험이 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춘기는 여아와 남아에 따라, 같은 성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시기에 시작된다. 여아에서 초경 나이는 평균 12세, 남아에서 몽정의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3세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춘기 시작이 12~18개월 빠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단, 초경은 8세에 시작될 수도 있으며 지난 2세기에 걸쳐 사춘기의 시작이 영양과 건강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 세기에, 유럽에서는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초경 나이가 17세에서 13세로 꾸준히 감소했다(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1967). 남아프리카의 초경 나이가 1956년에서 2004년에 걸쳐 14.9세에서 12.4세로 감소한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Jones 등 2009).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들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기(10~19세)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춘기에 이르렀으며 핵심적인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겪

고 있음을 뜻한다(United Nations 2011). 둘째, 투표, 결혼, 군 입대, 재산권 행사, 주류 소비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의 영역이라 생각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이가 국가법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이다(United Nations 2011). 이러한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활동 종류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결혼 가능한 나이가 18세이나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이다. 미국에서는 최소 16세에 운전할 수 있으나, 21세가 될 때까지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Johnson 등 2009). 셋째,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기로부터 분리시키는 법률적인 규정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과 아동들은 노동, 결혼, 투쟁 같은 성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제대로 보낼 수 없게 된다. 법률적으로 혼인 가능한 나이가 존재하더라도, 성인 남자는 혼인 가능한 나이보다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모권, 폭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United Nations 2011). 넷째, 청소년 단계가 점차 길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점차 중요해졌고, 20세기에 걸친 미국의 경제적, 교육적 추세는 청소년기를 성인기로부터 더욱 분리시켰다(Tanner 1972). 1920년대 고등학교의 등장과 의무 교육 확대로 1920~1960년대 사이에 학교에 다니는 14~16세 아동의 비율은 3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급증했다. 평균 혼인 연령 또한 1970년에 여자 21세, 남자 23세에서, 1996년에 여자 25세, 남자 27세로 높아졌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도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에 있어서, 일, 결혼, 부모 역할과 관련된 성인 역할의 시작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시작한다(Clark 2007). 다섯째, 청소년기의 기본 개념이 변하고 있다. Arnett(2006)은 백여 년 전 Hall이 정의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재조명하여 현대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울한 감정, 범죄의 증가, 고조된 감정의 추구, 언론의 영향 증가, 상대적 공격성, 부모보다 동료나 친구들에게 집중한다는 점은 현대 청소년기 특성과 일치한다. 반면 Hall의 이론 중 현대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도 존재하는데, 청소년기의 성숙 과정 중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개종(conversion)'을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은 것은 현재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Hall(1904)이 주장한 개종이란 현실의 한계와 타인의 욕구에 대해 자기를 억제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이는 영적인 믿음을 끌어안는다는 현대적 종교의 의미와는 다른 관점의 해석이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는 특정한 패러다임 하에서 이해되

고 이 패러다임은 현재의 시공간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작된다. Arnett(2006)의 연구는 청소년의 특징을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함을 시사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재조명이 필요한가?

최근 정신의학 영역에서 청소년기에 주목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성인기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다. 2013년 연령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Statistics Korea 2013) 1~9세의 사망원인은 운수사고, 악성 신생물, 선천/기형/염색체 이상, 10~19세 및 20~29세는 자살, 운수사고, 악성 신생물 순이었으며, 40대 이상은 악성 신생물과 각종 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었다(Table 1). 자살이 10대부터 30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기의 자살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뜻하며 아동도 성인도 아닌 고립된 단계의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통계자료에서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20대와 3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 많은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심리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자

극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 외상경험이 훗날 몇 십 년에 걸친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과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령기에 발생한 문제가 형태나 강도를 달리하여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또는 훗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장애는 없더라도 학령기 발달상의 문제가 가정생활과 사회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hn 2009). 이 후유증은 경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애가 암, 순환기 장애보다 질병부담이 오히려 높다(Remschmidt와 Belfer 2005). 자살의 경우도 사람마다 실행 시기는 다르나 본질적인 자살 욕구가 10대에 발생하여 20대와 30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폭력, 가난, 스트레스, 빈곤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Gitterman 1991)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이겨내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뛰어나다(Rutter 1987). 회복탄력성 함양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인생의 경험들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와 발달 과제를 접하게 될 때 수용력(capacity), 유연성(flexibility)과 대처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뜻한다(Lee 2006b). 따라서 청소년기는 가역적 기간(reversible period), 치료 가능한 상태(treatable state)에 해당한다.

Table 1. Leading causes of death from 2007 to 2013 in Korea

Age (year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							
1s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MN	MN	MN
2nd	MN	MN	MN	MN	Accident	Accident	Accident
3rd	CA	CA	CA	CA	CA	CA	CA
10-19							
1st	Accident	Accident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2nd	Suicide	Suicide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3rd	MN	MN	MN	MN	MN	MN	MN
20-29							
1st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2nd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3rd	MN	MN	MN	MN	MN	MN	MN
30-39							
1st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2nd	Accident	MN	MN	MN	MN	MN	MN
3rd	MN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Over 40							
1st	MN	MN	MN	MN	MN	MN	MN
2nd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Suicide
3rd	LD	LD	LD	LD	LD	LD	LD

CA: congenital anomaly, LD: liver disease, MN: malignant neoplasm

청소년기의 끝을 적절하게 구조화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정신질환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면,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는 물론,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문제 이외에 정신분석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연장은 인격 형성과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Blos 1966). 일찍부터 노동활동에 참여하여 성인 사회에 빨리 통합되었던 과거 아동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중등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분리가 가속화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소년기가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시간제 노동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학교 이외의 이차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았다(Modell과 Goodman 1990). 한때 미국에서는 결혼, 정규직 취업 혹은 군대와 같은 특정한 역할 수행을 통해 청소년기가 종료되고 성인으로 진입하는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시기를 '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Arnett 2000). 이 시기에 18세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 생활한다. 약 1/3은 대학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약 40%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20대에 거처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어느 정도는 의존을 유지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성인기와는 구별된다. 이렇듯 불안정한 시기가 연장되면서 파생되는 갈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대비와 대처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복잡한 생물학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영향의 상호작용 아래 형성되어 왔다. 여전히 진화하고 변천하는 단계이지만 사회문화적 및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심리사회적으로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청소년기의 끝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론

청소년기에 대한 보편적, 융합적 이해를 위해 먼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 포함된 정신적(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생물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또한 2013년 개정된 미국정신의학회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신건강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American Psychi-

atric Association 2013). DSM-5에서 말하는 문화에는 언어, 종교, 영성(spirituality), 가족구조, 생애 주기별 단계, 도덕 및 법 체계,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학대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및 보호인자인 영성에 대해 주목하였다(Romer와 Walker 2007). 즉,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정신적), 사회적, 생물학적(신체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청소년기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심리학적 측면

청소년기의 분리 개별화와 정체성 확립

Erikson(1964)은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거쳐 정체성 확립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여 알아가는 정체성의 성취는 타인과 분리된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분리 개별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좁은 의미에서 아동기 초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발달 과제를 의미하는 분리 개별화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보호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얻는 유아기의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에 해당한다(Mahler 1974).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차 분리개별화 시기라고도 한다(Blos 1966).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이차 개별화를 형성하는 데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 초기에는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나,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 함께 하려는 욕망이 증가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고 부모에 대한 감정적 강도가 감소하면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9~10세를 전후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부모의 모습에 모순을 느끼게 되고, 10대의 자녀에게 부모는 탈이상화(deidealization)의 대상이다(Table 2). 이것은 부모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부모의 모습에 감탄해 하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의 결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따뜻하고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10대들조차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더 이상 부모와 친밀한 관심이나 갈망을 공유할 수 없거나 공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은 자율성에 대한 소망과 돌봄을 받고 싶은 소망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Offer와 Schonert-Reichl(1992)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충고와 도움의 중요한 일차적 원천으로서 부모를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청소년 모

Table 2. Quantifiable age (years) for onset and end of the adolescence

Classification	Onset	End	References
Psychological			
Cognition/emotion	9-11	17-21	Seltzer 1989; Spano 2004
Social			
Law			
Protection	N/A	<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d
Support	9	2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a, 2015
Biological			
Male			
Central Nervous System	12	25	Giedd et al. 1999; Johnson et al. 2009
Sleep Cycle	10	20.9	Roenneberg et al. 2004
Tanner Staging	10	18	Crocker et al. 2014
Female			
Central Nervous System	11	25	Giedd et al. 1999; Johnson et al. 2009
Sleep Cycle	10	19.5	Roenneberg et al. 2004
Tanner Staging	8	18	Crocker et al. 2014
Cultural			
Korea			
Media Rating Board	N/A	18	Korea Media Rating Board 2015
International			
DESA	15	24	United Nations 2007
UNICEF	10	19	United Nations 2011
Spiritual			
Religion Faith	11	18	Fowler 1981

N/A: not available,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두 관계의 감정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분리개별화란 발달에 따른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지만, 자기만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2차 분리개별화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정신적 성취일 수 있다 (Blos 1966). 즉,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상실과 분리 대해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겪고 있어서 이 시기에 임상적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개별화가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사례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는 ‘히키코모리’(Teo와 Gaw 2010)를 들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늦은 결혼과 고령출산, 고학력화 등의 영향으로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가 불분명한 성인이 늘고 있다.

인지 능력의 발달

청소년은 Piaget가 말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는데, 이

는 ‘사실에 반하는 명제(contrary-to-fact proposition)’의 구축, 가설적-귀납적 문제 해결, 그리고 명제의 논리와 확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Coleman과 Hendry 1990). Piaget의 관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인지적 복잡성,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정보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의 증가가 청소년 인지 능력의 특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부모의 태도가 이전과 다르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순을 느끼면서 어른들에게 비밀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서서히 분리된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대신 또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부모에게 향했던 애착이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용모나 내면을 보는 방식에 대해 예민해지게 된다. 때로는 과도한 자기상으로 자신을 현실과 동떨어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신은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강한 열등감에 휘말리기도 한다. 따라

서 부모를 떠나 외부지향적으로 변하는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동일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를 통해 교우관계가 깊어지고, 이성 관계의 성립으로 생활 공간을 확대시키며 사회적 이해 능력도 향상된다.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과 함께 지적, 심미적인 것을 탐닉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 기능의 발달은 사회적 인지 및 도덕성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도덕적 추론이 보다 복잡해짐으로써 대인관계 지향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로부터 사회적 계약과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개념,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에 대한 사고 등으로 확장된다(Kohlberg 1969).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도덕적 각성’은 정치, 사상,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넓어진 시야는 기회와 위험 모두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은 도덕적 혼란 혹은 일시적인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 상태는 ‘Frameworklessness’로 불리기도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특정 종교나 사상에 열광적으로 빠져들거나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Seltzer 1989). 17세에서 21세를 전후로 청소년들은 말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유머 감각을 갖추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된다(Seltzer 1989)(Table 2).

심리 변화 및 정서 상태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 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and stress)’라고 부르기도 한다(Hall 1904). 질풍과 노도는 ‘매서운 바람’과 ‘성난 파도’를 뜻하며 청소년기의 격동적인 감정을 묘사한 것이다. 20세기 초까지도 상당수 청소년이 ‘질풍 노도’ 단계를 거친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Offer와 Offer(1975)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정상 발달 과정에서 약 21%만이 소위 청소년기의 격동(tumultuous growth)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약 25% 정도는 심한 스트레스 하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속적인 발달 성장이 진행되며(continuous growth), 약 34%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경험하지만 바로 회복되고 정상발달을 유지한다(surgent growth). 청소년이 자긍심을 갖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기는 17세에서 21세로 알려져 있다(Spano 2004)(Table 2).

청소년기에 대해 연구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를 정서적 혼란의 시기로 여긴다(Kaplan 2004).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을 갖게 되어 정서적인 동요가 심하다. 이러한 정서적 동요는 신체 성숙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Kestenberg(1967)는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가 심리적 발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

며, 이는 성욕 증가와 심리적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남자의 경우 빠른 성숙은 인기, 자존감,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집단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성이 증가한다. 반면, 여자의 경우 빠른 성숙이 오히려 자존감의 저하, 우울, 불안, 식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 계층이나 또래 집단, 문화적 표준과 같은 요인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빨리 성숙한 여자는 위험한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기도 하고, 더 이른 나이에 성행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표면적으로 일찍 성숙한 여아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일지라도, 후에 성숙한 또래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plan 2004).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불어 생식기관의 발달과 함께 고조된 성적 욕구를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측면

사회성 발달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표현하려는 본능적 충동을 갖는다(Coleman과 Hendry 1990). 자신들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경험하면서 성인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형성된 또래집단은 성인 혹은 기존 사회와 다소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규범을 만들어 차별화하고자 한다. 우정, 충고, 지지를 위해 친구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자기들만의 언어, 표식, 복장 등을 정하여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집단 내의 또래들과의 상호 관계를 경험하며, 예의, 권위 체계, 자신의 역할 등을 배우고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 이렇게 또래집단은 부모나 기존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나, 집단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왕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Son 2002). 또한 또래 압박(peer pressure)에 의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묵인되고, 조장되고,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은 일탈과 범법행위를 합리화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교의 중도 탈락, 청소년 범죄, 자해, 성범죄나 10대 임신 등과 연관성을 갖는다(Oh 등 2014).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인데 특정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인식(self-definition)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은 대개 행동, 태도, 흥미, 정체성을 공유하는 친구를 선택한다(Steinberg와 Morris 2001). 그러나 의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장점이나 특성 등에 기반하여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친구들은 지지 또는 전망의 근원, 비행에 같이 저지를 동료, 성적 또는 공격적 학대의 대상, 투사의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년별로 어울리는 성과 집단 크기가 변한다. 1학년 때는 동성 집단과 주로 놀다가, 2학년 때는 동성과 한 쌍으로, 3학년(juniors) 때는 혼성 집단, 4학년(seniors) 때는 주로 이성 커플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과 어울린다(Csikszentmihalyi와 Larson 1984).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이유로 부모의 충고에는 반항하면서도, 또래 사이의 가치, 특히 패션이나 옷, 음악, 텔레비전, 영화에 있어서는 노예처럼 순응한다. 또래들은 비행이나 물질남용과 같은 부정적 방식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취와 같은 긍정적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Steinberg와 Morris 2001).

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기에는 서로를 향한 성적 매력을 경험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자각하게 된다. 학령전기 동안 상당히 성기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시기를 보낸 후, 학령기 동안은 뚜렷한 성적 행동과 관심이 감소한다(Rutter 1970). 만약 은밀한 자위행위가 지속된다면, 아이는 성과 연애에 관련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소극적이고 꺼리게 된다. 약 10세부터 느끼는 성적인 매력은 부신 안드로겐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이들이 동성에 매력을 느끼고 동성에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약 10~11세 무렵이다.

초기 청소년들에게 운동선수, 유명한 스타나 배우와 같은 인물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연애 관계를 알아가는 중요한 경험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연애 관계에서 기대되는 성 역할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연애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걸쳐 이성 동료로부터 받는 지지나 그들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점차 증가하여, 후기 청소년들은 연애 상대를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Brown 등 1999).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기의 범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적 관심은 1964

년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기점으로 한다(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6).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고, 청소년을 전담하는 국가 부서가 신설되었다.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함에 이르렀으나, 청소년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6). 청소년활동진흥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a), 청소년 기본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c), 청소년복지 지원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하는 반면, 민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b), 청소년 보호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d)에서는 19세 미만이 청소년에 해당한다(Table 2).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청소년의 기준을 19세로 엄격히 규정하였으나, 권익과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민법에 따르면 결혼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는 나이에 상관 없이 청소년기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의 범죄를 다스리는 소년법의 경우, 2007년 12월 소년범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7). 따라서 19세부터는 성인의 범죄로 취급된다.

청소년 비행(Delinquency)

Hall(1904)은 “어느 정도의 범죄는 모든 건강한 청소년 남자들에게 있어서 정상이다”라고 했다. Anna Freud는 청소년기의 내부 격변에 “청소년기 동안 꾸준한 평형상태의 유지”는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하였다(Freud 1958). 이렇듯 10대는 자동차 사고, 마약, 타살, 자살, 성병 등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에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지위 비행(status offenses)과 비(非)지위 비행(non-status offenses)으로 구분된다. 지위 비행이란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이성과의 성교 등과 같이 행위자의 연령 때문에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비지위 비행이란 경범죄부터 폭행, 절도, 강도 및 강간, 살인에 이르는 불법적인 모든 범법행위를 뜻한다(Moore와 Arthur 1989).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Burrows 1946).

일반적으로 어린 시기(대개 10세 이전)에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청소년기에 발병한 경우보

다 좀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Steinberg와 Morris 2001). 나이에 따라 비행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8~11세에는 주로 거짓말, 몸싸움, 놀리기, 방화,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하기 등을 보이며, 11~13세에 이르러서는 잔인한 행동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고, 위협, 가출, 무단결석, 노상강도, 물건파괴, 성적인 문제 등을 보이게 된다(Olsson 2009). 청소년들이 위험 행동을 가끔 시험삼아 하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하는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Steinberg와 Morris 2001).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알코올이나 사소한 비행을 시험삼아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성인기까지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청소년기 행실 문제가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면, 아동기에 발생한 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며, 성인기에도 반사회적 행동과 약물남용이 지속되는 수가 많다(Ahn 2009).

생물학적 측면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 성장

사춘기(puberty)는 성인의 나이를 뜻하는 라틴어의 'pubertas'에서 유래되었다(Susman과 Dorn 2009).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겪게 되며,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로 활용된다(Sisk와 Foster 2004).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일차 및 이차 성징의 발달, 키의 성장, 근육의 양과 강도 증가, 땀샘 활동의 증가 등은 부신 피질 호르몬, 성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난다(Spear 2000). 부신 피질 호르몬은 성선 기능 개시 전 골격과 체모를 발달시키고, 사춘기에 이르면 뇌하수체에서 여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과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성선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분비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와 협동 과정이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Sisk와 Foster 2004). 사춘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빨리 시작하고, 음모, 유방 발달, 월경, 고환의 성장, 키의 성장 등의 요소에 따라 Tanner의 I~V 단계로 분류된다(Crocker 등 2014). Tanner의 분류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 이르면 8세부터 유방의 발달과 음모가 자라고, 남자의 경우 10세부터 고환이 성장하는 사춘기가 시작된다(Johnson 등 2009)(Table 2).

사춘기에 임박한 청소년은 1년에 10 cm에 이를 정도로 키의 성장이 가속화된다. 근육의 증가는 키의 성장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크고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보인다(Herman-Giddens 등 1997). 사춘기의 초기 단계는 유방 발달과 음모의 발달 등이지만, 여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신호는 초경(menarche)이다. 월경 주기는 초반에는 불규칙

적이고, 완전한 생식력을 갖추는 데는 약 2년이 걸린다. 알맞은 체중과 지방 및 근육비율이 초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전문적 운동 훈련을 받거나 거식증 증세가 있는 여아의 경우 초경이 늦춰질 수 있다. 적절한 영양과 체중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10년에 약 2.3개월씩 그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다(Herman-Giddens 등 1997). 반면 남자에 있어서는, 음경 고환의 성장과 정자 생성(spermatogenesis)이 사춘기 초기 또는 중기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초경과는 달리, 사정의 시작(semenarche)에 대한 남자의 반응은 보통 놀람, 기쁨, 혼란 등으로 다양하고 배뇨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남자들은 첫 사정을 경험하더라도 주위에 알리지 않아 사정의 유무를 겉으로 알아채기 어렵고 혼자만의 사적인 일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Stein과 Reiser 1994).

청소년기에는 수면 형태도 달라진다. 10세까지는 상쾌한 상태로 잠에서 깰 수 있으나,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 변화로 인해 체내의 생물학적 시계가 느려져 밤이 늦게 시작되고 아침 또한 연장되므로, 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Roenneberg 등 2004). 이러한 수면주기형태(chronotype)는 이후 나이가 들면서 입면 가능시간이 앞 시간대로 이동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19.5세, 남성은 20.9세부터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수면주기형태로 청소년기의 끝과 성인기로의 진입을 구분하기도 한다(Table 2). 청소년기의 수면 형태 변화에는 정신사회적 요인도 작용한다. 미국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침실에 적어도 한 개의 미디어 전자 기기를 갖고 있다(National Sleep Foundation 2006). 전화나 이메일과 같은 사회적인 자극이 증가하면서 늦은 밤 핸드폰 사용과 같은 전자기기의 노출은 청소년의 수면장애를 일으킨다(Munezawa 등 2011). 카페인의 섭취 또한 늦게 잠들고 학교에서 졸거나 자는 수면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alamaro 등 2009). 이렇게 청소년들은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으로 10~12세 아이들은 밤에 약 9.3시간을 잔 뒤에 스스로 일어나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7.5시간, 그 중 1/4은 6.5시간 미만이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실제 수면 필요 시간은 10시간에 가깝다.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 현대 생활양식과 사회적 의무와 같은 요인들의 결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주기성 리듬 안에서 적게 자면서 고통 받고, 일어나는데 어려워하며, 낮에 자주 졸리고, 인지 기능 장애도 발생하게 된다(Owens 2014). 이러한 수면 주기 변화로 청소년들은 학업 문제, 우울(Roberts 등 2009),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Clinkinbeard 등 2011)에 놓이게 된다.

중추신경계의 변화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서 받은 단 한 마디의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부모나 또래의 말 한 마디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보상에 반응하는 측좌핵의 발달로 보상의 효과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Galvan 등 2006). 이와 더불어 슬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복측 기저핵(ventral striatum)의 반응성도 증가(Pfeifer 등 2011)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비해 감정적 및 사회적 보상이 청소년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사회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Galvan 등(2006)은 자동차 게임 실험을 통해 청소년이 혼자 하는 행동과 또래가 지켜보고 있을 때 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기능성 뇌자기 공명영상검사로 복측기저핵 변화를 통해 증명하였다. 즉, 대학생이나 젊은 성인에 비해 고등학생 참가자들은 친구가 지켜보고 있을 때 무모하고 과감하게 행동한다.

청소년기는 회백질과 백질의 변화(Giedd와 Rapoport 2010), 백질의 연결성 변화(Jolles 등 2011), 뇌기능 변화(Baird와 Fugelsang 2004)와 함께 뇌가 개조되는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기 시작 전까지는 뉴런의 수가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기 뇌의 리모델링은 뉴런의 숫자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Mortera와 Herculano-Houzel 2012). 청소년 뇌의 재조직화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피질 시냅스들의 방대한 제거 과정인 '가지치기(pruning)'로, 청소년기에는 초당 최대 3만 개의 시냅스가 제거되고, 사춘기 이전에 존재하던 피질 시냅스 연결의 반이 줄어든다. 이는 우선적으로 흥분성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뇌의 포도당 대사, 산소 이용, 혈류의 감소, 전반적 뇌파의 진폭 감소가 일어난다. 전반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복잡하고 국소적인 형태의 뇌 활성화도 동반된다(Jolles 등 2011). 시냅스는 흥분성 글루타민산과 도파민의 신호 유입이 감소하는 신경생리학적 리모델링이 특히 전전두엽(prefrontal) 피질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전전두엽 피질은 청소년의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을 돕는 부위로, 20대 중반까지 계속 성숙한다. 소아기 동안 뇌량(corpus callosum)의 성장은 전후방(rostrorocaudal)으로 일어난다. 측두두정엽(temporoparietal)의 연합 영역과 언어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섬유들의 성장 속도는 초기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데, 아마도 제2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의 끝과 맞물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질의 부피는 영역마다 다르게 변화하여 측두두정엽은 증가하고, 피질 하 회백질(subcortical gray matter)은 50%까지 감소한다. 전두엽 피질이 성숙하고(Tamm 등 2002), 인지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퇴화함으로써(Durstun과 Casey 2006)

청소년기의 인지 기능 조절이 발달한다.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자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뇌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될수록 그 변화의 정도가 일정해진다. 사춘기에 백질의 부피는 남녀 모두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Lenroot 등 2007). 반면 뇌의 전체 부피는 남자가 여자보다 10퍼센트 정도 크다. 사춘기 직전에 나타나는 회백질 부피의 최고조 도달은 여자가 11세, 남자가 12세로 여자에서 먼저 일어나며, 20대가 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뇌의 성장은 약 25세까지 지속된다(Giedd 등 1999) (Table 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른 사춘기를 겪는 현상이 성별에 따른 뇌 발달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20대에 일어나는 회백질의 부피 감소가 사춘기의 성숙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Lenroot 등 2007).

청소년기에 뇌의 구조와 기능 상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지적 능력 향상과 다양한 동기, 집중,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전두엽 피질은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인지기능의 조절 능력과 비례하여 성숙하나,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가 인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발달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성숙 정도의 차이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Somerville 등 2010).

문화적 측면

매스미디어와 청소년

청소년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범위와 한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d). 이밖에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이러한 미디어 등급 체계의 목표는 부모나 유통업자 같은 개인에게 미디어 상품에 관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소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Gentile 등 2005). 한 예로 영상물등급위원회(Korea Media Rating Board 2015)에서 영화, 비디오, 광고 선전물 등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소아와

청소년이 부적절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영화와 비디오물 등은 12세, 15세, 18세를 기준으로 관람등급이 나뉜다(Table 2).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 언어, 폭력, 약물 사용 등에 따라 시청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나이의 기준은 한국과 같은 12세, 15세, 18세이다(Film Classification and Rating Committee 2015).

세계화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정의하기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고 청소년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전통 사회와 주류 서양 문화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인류학 연구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혼란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더 적었을 수 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Arnett 1999). 현대화(modern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은 그러한 전통 사회에 있는 10대를 점점 더 서구적 미디어와 문화적 영향에 노출시키게 되고, 청소년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전 세계 청소년의 85%인 10~19세 인구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이들은 국가 인구의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 세기의 문화, 정치, 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을 향한 국제기구의 관점은 어떠한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11)에서는 청소년이란 '아동의 의존성에서 성인의 독립성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고정된 연령대라기보다는 유동적인 집단'이라 규정한다. 연령이란 교육과 고용의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청소년기를 의무 교육을 완료하거나 첫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나이로 규정하기도 한다(Arnett 2000). 그러나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얻지 못하게 되고 연장된 청소년기로 돌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07)에서는 청소년 조항을 제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통계적으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청소년(youth)으로 분류하지만(Table 2), 국가나 사회 변화와 같은 맥락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United Nations 2007).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청소년 현장에서는 15세에서 35세의 사람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전문학회의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의학적 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미군에서는 군 입대 전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연방재단(Commonwealth Fund)과 록펠러 재단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부터 아동상담소의 설립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다(Karl과 Katz 1981). 이후 아동상담소와 소아정신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3년 설립된 미국소아정신의학회(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AACP)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임상 주제를 토의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다(Munro와 Wilson 2008). AACP는 수련과 임상 진료의 표준을 수립하고 많은 의사가 소아정신의학에 지망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소아정신의학 분야의 예방, 치료,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AACP는 초기 입회 자격을 구성원의 초대로 제한하였으나, 1967년 입회 요건을 개방하고 학회 명칭을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로 변경하여 훈련된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의 단체임을 표방하였다(Slaff 1989). 비슷한 시기인 1959년에 형성된 미국 정신과 및 신경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Psychiatry and Neurology)는 정신의학 수련에 대한 인증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1987년 인증 위원회의 명칭을 Committee on Certification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로 바꾸어 청소년 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육성을 장려하였다. 1967년에는 American Society for Adolescent Psychiatry가 창립되었고,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여 청소년기와 이 시기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Munro와 Wilson 2008). 유럽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역시 1960년 결성될 당시에는 유럽소아정신의학회(European Society for Child Psychiatrists)였으며, 1982년 청소년을 포함하게 되었다(Tamminen 2011).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시작은 소년 범죄자·비행자를 위한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에서 비롯되었다(Hong 2003). 1945년 소년 범죄자들은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게 되고, 소년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남산소년구호상담소가 발족되어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이 아동 비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1958년 을지로에 문을 연 한국아동상담소는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아동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였고, 2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연령대까지 포함하였다. 1980년 홍강의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아청소년정신과를 개설하였고, 1983년에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가 공식 학술단체로 발족하였다. 1997년에는 청소년의 문제 및 정신장애 치료에 일반정신과 전문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가 설립되었다. 유관 학회 중 우리나라 '소아과'의 경우 1945년 학회가 설립되었고, 2007년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였으나, 청소년의 연령기준

을 명시하지는 않았다(Sohn 2008). 대신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10~19세, 미국청소년의학회의 10~20세 초반 등을 차용하였다.

종교와 영성

청소년기는 Piaget의 발달 단계상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로 자신의 가치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삶과 죽음, 신의 존재에 관한 철학적 문제와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가치 체계를 정립해 나간다(Fowler 1981). Fowler (1981)는 신앙이 평생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달한다고 생각하고 발달단계를 분류하였다. Piaget, Kohlberg,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분화된 신앙 단계(undifferentiated faith)(1~2세, 영아기)와 여섯 단계의 분화된 신앙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직관적-투시적 신앙(3~7세, 유아기), 2단계는 신화적-사실주의적 신앙(7~11세, 학령기), 3단계는 종합적-관습적 신앙(11~18세, 청소년기), 4단계는 개별적-반성적 신앙(18~30세, 성년기), 5단계는 결합적 신앙(30~40세, 중년기), 6단계는 보편적 신앙(40세 이상, 노년기)이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3단계는 활동범위가 가족을 넘어 확대가 이루어지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사고 확장이 일어나지만, 신앙적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에 의존하고 있고 무비판적으로 특정 신념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시기이다(Table 2). 점차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세계를 숙고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확장되는 삶의 형태는 3단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은 곧 4단계 개별적-반성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Fowler 1981).

종교와 달리 영성(spirituality)은 종교적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자신, 이웃, 자연 및 상위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역동적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및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이다(Oh와 Kang 2000). 영성은 교리, 의식, 지정된 장소와 신령스러운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을 대신하여 연설하는 사람들로 조직화된 종교와는 구별된다(Grof 2000).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후기 청소년기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과 영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질적인 자료들은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내고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Mason 2014). 영성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Mason 2014). 높은 수준의 영성은 여자 청소년에서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Desrosiers와 Miller 2007). Mason(2014)은 16~

21세의 청소년 22명을 이메일로 인터뷰한 결과, 후기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인지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결론

사회문화적 변천과 더불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과도기 단계로 등장한 청소년기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자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개별 연구자는 물론 연구 영역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하는 기준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청소년기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발달이론을 연구한 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분석가이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완성되는 시기를 청소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도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령의 경우 청소년 비행과 성인 범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도 법규 제정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성호르몬과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대개 17~20세 사이에 성인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간의 연장과 결혼 및 직업생활 시작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영성은 청소년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주요 인자일 수 있으며, 자아정체성 수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청소년기라는 동일한 발달단계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시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개념과 경계를 규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Ahn DH.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J Korean Med Assoc 2009; 52:745-75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 Arnett JJ.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 Psychol 1999; 54:317-326.
- Arnett JJ.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 Psychol 2000;55:469-480.
- Arnett JJ. G. Stanley Hall's Adolescence: brilliance and nonsense. Hist

- Psychol 2006;9:186-197.
- Baird AA, Fugelsang JA. The emergence of consequential thought: evidence from neuroscience. *Philos Trans R Soc Lond B Biol Sci* 2004; 359:1797-1804.
- Blos P.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ew York: Free Press;1966, p.227.
- Brown BB, Feiring C, Furman W. Missing the love boat: why researchers have shied away from adolescent romance. In: Furman W, Brown BB, Feiring C.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9. p.1-16.
- Burrows AH.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J Edu Soc* 1946;19: 382-390.
- Calamaro CJ, Mason TB, Ratcliffe SJ. Adolescents living the 24/7 lifestyle: effects of caffeine and technology on sleep duration and daytime functioning. *Pediatrics* 2009;123:e1005-e1010.
-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a report of the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England). Vol 1.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MSO);1967.
- Clark W. Delayed transitions of young adults 2007 [cited 2015 Mar 24]. Available from: <http://www.statcan.gc.ca/pub/11-008-x/2007004/pdf/10311-eng.pdf>.
- Clinkinbeard SS, Simi P, Evans MK, Anderson AL. Sleep and delinquency: does the amount of sleep matter? *J Youth Adolesc* 2011; 40:916-930.
- Coleman JC, Hendry LB. The Nature of Adolescence. 2nd ed. New York: Routledge;1990.
- Crocker MK, Stern EA, Sedaka NM, Shomaker LB, Brady SM, Ali AH, et al. Sexual dimorphisms in the associations of BMI and body fat with indices of pubertal development in girls and boys. *J Clin Endocrinol Metab* 2014;99:E1519-E1529.
- Csikszentmihalyi M, Larson R. Being adolescent: Conflict and growth in the teenage year. New York: Basic Books;1984.
- Desrosiers A, Miller L. Relational spiritual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J Clin Psychol* 2007;63:1021-1037.
- Durston S, Casey BJ. What have we learned about cognitive development from neuroimaging? *Neuropsychologia* 2006;44:2149-2157.
- Erikson E.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W. W. Norton;1964.
- Fasick FA. On the "Invention" of Adolescence. *J Early Adolesc* 1994;14: 6-23.
- Film Classification and Rating Committee (EIGA RINRI IINKAI, EIRIN). Film Classification 2015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eirin.jp/english/008.html>.
- Fowler JW. Stages of faith. New York: Harper and Row;1981.
- Freud A. Adolescence. *Psychoanal Study Child* 1958;13:255-278.
- Freud S. A case of hysteria, three essays on sexuality and other works. Vol 7. London: Hogarth press;1904.
- Galvan A, Hare TA, Parra CE, Penn J, Voss H, Glover G, et al. Earlier development of the accumbens relative to orbitofrontal cortex might underlie risk-taking behavior in adolescents. *J Neurosci* 2006;26: 6885-6892.
- Gentile DA, Humphrey J, Walsh DA. Media ratings for movies, music, video games, and television: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Adolesc Med Clin* 2005;16:427-446, x.
- Giedd JN, Blumenthal J, Jeffries NO, Castellanos FX, Liu H, Zijdenbos A, et al. Brain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longitudinal MRI study. *Nat Neurosci* 1999;2:861-863.
- Giedd JN, Rapoport JL. Structural MRI of pediatric brain development: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Neuron* 2010;67: 728-734.
- Gitterman A. Handbook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1991. p.1-32.
- Grof S. Psychology of the future: Lessons from modern consciousness research (sunny series in transpersonal and humanistic psychology). 1st ed.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2000.
- Hall GS.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1904.
- Herman-Giddens ME, Slora EJ, Wasserman RC, Bourdony CJ, Bhapkar MV, Koch GG, et al.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and menses in young girls seen in office practice: a study from the Pediatric Research in Office Settings network. *Pediatrics* 1997;99:505-512.
- Hong KE.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a re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3;14:139-149.
- Jagenow D, Raufelder D, Eid M. The development of socio-motivational dependency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Front Psychol* 2015; 6:194.
- Johnson CC, Webber LS, Myers L, Boris NW, Berenson GS. Co-use of alcohol and tobacco among ninth-graders in Louisiana. *Prev Chronic Dis* 2009;6:A85.
- Johnson SB, Blum RW, Giedd JN. Adolescent maturity and the brain: the promise and pitfalls of neuroscience research in adolescent health policy. *J Adolesc Health* 2009;45:216-221.
- Jolles DD, van Buchem MA, Crone EA, Rombouts SA. A comprehensive study of whole-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Cereb Cortex* 2011;21:385-391.
- Jones LL, Griffiths PL, Norris SA, Pettifor JM, Cameron N. Age at menarche and the evidence for a positive secular trend in urban South Africa. *Am J Hum Biol* 2009;21:130-132.
- Kaplan PS. Adolescence.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 Karl BD, Katz SN. The American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 and the public sphere 1890-1930. *Minerva* 1981;19:236-270.
- Kestenberg JS. Phases of adolescence with suggestions for a correlation of psychic and hormonal organizations. I. Antecedents of adolescent organizations in childhood. *J Am Acad Child Psychiatry* 1967;6:426-463.
- Kett J. Rites of passage: Adolescence in America, 1790 to the present. New York: Basic Books;1977.
- Kohlberg L.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and 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1969.
- Korea Media Rating Board. Categories [cited 2015 Feb 20]. Available from: <http://www.kmrb.or.kr/guide/purpose.do>.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 2014b [updated 2014 Jan 28;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0>.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vil act, article 4, 2011 [updated 2011 Mar 7;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amework act on juveniles, article 3, 2014c [updated 2015 Feb 3;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0>.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uvenile act, article 2, 2007 [updated 2007 Dec 21;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article 2, 2014a [updated 2014 Jan 21;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 2014d [updated 2014 Mar 23;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2015 [updated 2015 Feb 3;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x=44&y=13#liBgcolor1>.
- Lee HS. An exploring study on the use of 'youth' and the way of definition in the discourse on youth. *Asian J Educ* 2006a;7:43-59.
- Lee SY, Moon DS, Chung US, Bahn GH. Harry Potter's Pensieve and the Unconscious. *Psychoanalysis* 2013;24:92-101.
- Lee TY. Resili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conceptual bases and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Int J Adolesc Med Health* 2006b;18:475-482.
- Lenroot RK, Gogtay N, Greenstein DK, Wells EM, Wallace GL, Clasen LS, et al. Sexual dimorphism of bra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uroimage* 2007;36:1065-1073.
- Mahler MS. Symbiosis and individuatio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Psychoanal Study Child* 1974;29:89-106.
- Mason DM. Finding myself: a theory on the maturation of spirituality and its influence on behavior during late adolescence. *Res Theory Nurs Pract* 2014;28:316-334.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A white paper on adolescence [update 2015 Feb 13;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5714.
- Modell J, Goodman M. Historical perspectives. In: Feldman SS, Elliott GR.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93-12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1990. p.93-122.
- Moore DR, Arthur JL. Juvenile delinquency. In: Ollendick TH, Hersen M.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1989. p.197-198.
- Mortera P, Herculano-Houzel S. Age-related neuronal loss in the rat brain starts at the end of adolescence. *Front Neuroanat* 2012;6:45.
- Munezawa T, Kaneita Y, Osaki Y, Kanda H, Minowa M, Suzuki K,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use of mobile phones after lights out and sleep disturbances among Japanese adolescen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Sleep* 2011;34:1013-1020.
- Munro S, Wilson DR. Psychiatry: organized and disorganized. *Psychiatr Clin North Am* 2008;31:137-147.
- National Archives of Korea. Juvenile act [updated 2006 Dec 01;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00&pageFlag=>.
- National Sleep Foundation. 2006 Teens and sleep [cited 2015 Mar 24]. Available from: <http://sleepfoundation.org/sleep-polls-data/sleep-in-america-poll/2006-teens-and-sleep>.
- Offer D, Offer J. Three developmental routes through normal male adolescence. *Adolesc Psychiatry* 1975;4:121-141.
- Offer D, Schonert-Reichl KA. Debunking the myths of adolescence: findings from recent research.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2;31:1003-1014.
- Oh MA, Park C, Lee YJ, Hong M, Han JH, Oh SH, et al. The analysis of self-mutilation in adolescence based on the theory of mentalization: from sukhvinder in the novel 'casual vacancy'. *Psychoanalysis* 2014;25:24-32.
- Oh PJ, Kang KA. Spirituality: concept analysis. *J Korean Acad Nurs* 2000;30:1145-1155.
- Olsson M. DSM diagnosis of conduct disorder (CD)--a review. *Nord J Psychiatry* 2009;63:102-112.
- Owens J; Adolescent Sleep Working Group; Committee on Adolescence. Insufficient sleep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n update on causes and consequences. *Pediatrics* 2014;134:e921-e932.
- Pfeifer JH, Masten CL, Moore WE 3rd, Oswald TM, Mazziotto JC, Iacononi M, et al. Entering adolescence: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risky behavior, and neural changes in emotion reactivity. *Neuron* 2011;69:1029-1036.
- Rakoff V. The emergence of the adolescent patient. In: Rosner R. *Textbook of adolescent psychiatry*. London: Arnold;2003. p.3-9.
- Remschmidt H, Belfer M. Mental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orldwide: a review. *World Psychiatry* 2005;4:147-153.
- Roberts RE, Roberts CR, Duong HT. Sleepless in adolescence: prospective data on sleep deprivation, health and functioning. *J Adolesc* 2009;32:1045-1057.
- Roenneberg T, Kuehne T, Pramstaller PP, Ricken J, Havel M, Guth A, et al. A marker for the end of adolescence. *Curr Biol* 2004;14:R1038-R1039.
- Romer D, Walker EF.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d the developing brain: Integrating brain and prevention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7. p.356-357.
- Rowling JK. *Harry Potter Boxed Set*. London: Bloomsburg;2007.
- Rutter M. Normal psychosexual development.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70;11:259-283.
- Rutter M.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 J Orthopsychiatry* 1987;57:316-331.
- Seltzer VC. *The psychosocial worlds of the adolescent: public and private*. New York: John Wiley & Sons;1989.
- Simanowitz V, Pearce P. *Personality development*.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2003. p.1-29.
- Sisk CL, Foster DL. The neural basis of puberty and adolescence. *Nat Neurosci* 2004;7:1040-1047.
- Staff B. Histor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deas an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twentieth-century review. In: Feinstein SC, Marohn RC. *Adolescent psychiatry: developmental and clinical studies*. Vol 1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9. p.31-52.
- Sohn YK. Changes related term alteration of pediatrics and roles of pediatrician. *Korean J Pediatr* 2008;51:1133-1135.
- Somerville LH, Jones RM, Casey BJ. A time of change: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of adolescent sensitivity to appetitive and aversive environmental cues. *Brain Cogn* 2010;72:124-133.
- Son JW. The difference of the behavioral problem and maternal rearing pattern betwee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in peer neglect or rejection and those in non-neglect: a preliminary study.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2002;13:177-188.
- Spano S. Stages of adolescent development. ACT for Youth Upstate Center of Excellence. 2004 [cited 2015 Mar 20]. Available from: http://www.actforyouth.net/resources/rf/rf_stages_0504.pdf.
- Spear LP. The adolescent brain and age-related behavioral manifestations. *Neurosci Biobehav Rev* 2000;24:417-463.
-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3 [updated 2014 Sep 23; cited 2015 Feb 2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0181.
- Steffoff R. *Adolesc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1990. p.16.
- Stein JH, Reiser LW. A study of White middle-class adolescent boys' responses to "semenarche" (the first ejaculation). *J Youth Adolesc* 1994;23:373-384.
- Steinberg L, Morris AS. Adolescent development. *Annu Rev Psychol*

- 2001;52:83-110.
- Susman EJ, Dorn LD.** Puberty: its role in development. In: Lerner RM, Steinberg L.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individual ba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 Vol 1. Hoboken: Wiley;2009. p.116-151.
- Tamm L, Menon V, Reiss AL.** Maturation of brain function associated with response inhibit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2; 41:1231-1238.
- Tamminen T.**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Europe. *Eur Child Adolesc Psychiatry* 2011;20:495-496.
- Tanner D.**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MacMillan;1972.
- Teo AR, Gaw AC.** Hikikomori, a Japanese culture-bound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a proposal for DSM-5. *J Nerv Ment Dis* 2010; 198:444-449.
- Trites RS.** The Harry Potter novels as a test case for adolescent literature. *Style* 2001;35:472-485.
- United Nations.**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Adolescence, an Age of Opportunity. New York: UNICEF;2011.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Youth Report 2007. [cited 2015 Mar 11]. Available from:http://www.un.org/esa/socdev/unyin/documents/wyr07_complete.pdf.
- Winnicott DW.** Playing and reality. London: Routledge;1971. p.145.
- World Health Organization.** Joint 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Seen but Not Heard: Very young adolescents aged 10-14 years. Geneva: UNAIDS;2004. p.5-7.
- World Health Organization.** Manual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ies, and Causes of Death, 10th re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1992.
- Zelizer VA.**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New York: Basic Books;1985.